

'26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 2	2.25	회의실	8/12	4	1	13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양우·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장은백·정희(8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2	0	0	9	0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9	0	0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행정통합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심층 대담 형식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3.17),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 토론회>(3.18), <광주MBC 보다> 이정선 교육감(3.2) 등 방송 조치	'26.2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계속 관심을 두고 방송해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광주시, 5.18 50주년 기획단 신설(3.2), 5.18기념재단, 정치권에 개헌특위 구성 촉구(3.4) 뉴스투데이> "5.18정신 헌법 수록, 더는 미룰 수 없다"(2.26) 등 방송 조치	"
"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지자체 노력에 함께 해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광양만권 특화단지, '소재 강국' 노린다(3.3), 국부펀드 1호·신안 '바람연금' 속도낸다(3.3) 등 방송 조치	"
"	지자체의 관광객 할인 정책 점검 및 홍보 바람	<뉴스투데이> 정부 '반값여행' 4월 추진·전남 6곳 선정(3.3) 등 방송 조치	"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 필요	<뉴스투데이> 전남대·GIST, 의과학 인재 양성 협력(2.25), <뉴스데스크> 통합 특별시 성공의 열쇠 '반도체'(3.9) 등 방송 조치	"
"	뉴스 단신보다는 리포트 비중을 높이길 바람	보도 책임자와 뉴스팀장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3.3) 등 방송 조치	"
"	행정통합 이후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시사톡 라이브>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의미는(3.3), <행정통합 급물살 속 교육 방향은 어디로?(2.26), <뉴스데스크> '통합특별시' 눈앞·남부권 성장축 시동(2.25),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7월 1일 공식 출범(3.2), <시사용광로> 통합특별시 '20조' 활용법(3.19)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미담 발굴 및 좋은 정책 소개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매주 수요일 의회의 인물 코너에서 정책 소개, 남구교복 나눔센터 LTE 연결(3.4), 바다 위의 병원(3.10) 등 방송 조치	"
"	<테마기행 길> 출연 연예인이 식당 주인에게 하대하는 말투 부적절함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유의 권고 조치(3.3)	"
합계		9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행정통합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심층 대담 형식 필요	지방선거 출마자들 심층 인터뷰와 검증 코너를 준비해서 보도하겠음	○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계속 관심을 두고 방송해주길 바람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제도가 완비된 만큼 여론 형성을 촉구하는 보도를 이어 나가겠음	○		
"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지자체 노력에 함께 해주길 바람	지역균형발전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발제부터 취재까지 최선을 다하겠음	○		
"	지자체의 관광객 할인 정책 점검 및 홍보 바람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 보도하겠음	○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 필요	신산업, 대기업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 두고 보도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	뉴스 단신보다는 리포트 비중을 높 이길 바람	단신뿐만 아니라 리포트 발제 개수 를 늘리고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		
"	행정통합 이후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행정통합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정 통합 이후 지역민 권익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점검해나 가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미담 발굴 및 좋은 정책 소개 바람	매주 수요일 의회의 인물 코너를 통 해 광주광역시 정책을 집중 소개	○		
"	<테마기행 길> 출연 연예인이 식 당 주인에게 하대하는 말투 부적절 함	제작팀에 진행자 멘트에 대한 시청 자 의견 전달, 추후 촬영에서 개선 하기로 함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2월)

일시	2026년 2월 25일(수)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박양우 · 설제학 · 양지현 · 유한별 · 이경주 · 이미진 · 장은백 · 정희 위원(8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감사하다. 날씨가 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아파트 산책하며 보니까 나무가 많은 데 벌써 움이 트는 게 다 보인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꽃샘추위가 있겠지만 봄이 오는 걸 누가 막겠나. 설레는 2월에 뵙게 돼 반갑다. 광주·전남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넘어가게 됐다. 세 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두 개 지역이 난항이다. 우리 지역의 특별법이 잘 마무리돼 고향이 발전하길 바란다. 몇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지만 지혜롭게 진행 시켜서 우리 지역에 예산 외에도 유치 등 통해 발전하길 바란다. 광주MBC는 가열차게 방송하고 지역을 위해 큰 공을 했다.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통해 광주MBC 발전 기여할 것이다. 2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박양우 위원장님, 이미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큰 줄기는 지방선거와 행정통합이다. 지방선거는 100여 일 남았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역방송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통합에 따라 지역 MBC 통합 문제도 저희는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디지털을 넘어 AI 시대가 도래했다. 김치, 김장 등 우리 문화를 K-콘텐츠에 올라타자는 각오로 역할을 할 것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업무 보고사항부터 해달라.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콘텐츠본부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1월22일 AI페퍼 스배구단 편을 방송했고, 2월4일 의회의 인물에서는 이명노, 채은지 의원이, 잘 먹고 잘사는 법에서는 유한별 변호사가 출연했다. <광주MBC보다> '신지동철'에서는 2월21일 전남광주 통합 관련해 민형배 의원이 출연했고, 2월23일에는 주철현 의원이 출연했다.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놀라운 오후 3시> <시사특 라이브> <라디오 칼럼> 정규방송을 했으며, 디지털 콘텐츠로는 DJ 육성 회고 제작물을 업로드했고, GCON XR실증사업에서 김대중, 노무현 환생 대담 기획이 제작지원 공모에서 1차 통과됐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지원 공모에 출품한다. 한참 공모 시즌이다. 총 7편 출품을 준비하고 있다. 잘 준비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게 하겠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광주전남 통합의 시대로'를 주제로 설 명절에 네 차례 기획 보도했다. 그동안 경과, 변화되는 점, 우려, 기대 등을 다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단독 대담을 방송했다. 6.3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광주MBC 창사 이래 첫 삼부요인 방문이었다. MBC 본사에서 경영평가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광주MBC는 2025년 평균 시청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프라임시간대 시청률 6.2%로 지역 MBC 중 1위다. 같은 시간대 경쟁사를 압도했다. <시사용광로>에서는 1월22일 '행정통합이 바꿀 호남의 미래는?', 1월2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아야 할 것은?', 2월5일 '호남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가는 조건은?', 2월12일 '다가오는 지방선거 판도는?'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네이버 입점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한다. 2월20일 오프라인 입점 설명회에 참석했다.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다음 카카오 및 유튜브 구독자 배가 등 준비를 진행해 왔다.
- 박양우 위원장 : -프라임시간대 시청률 광주MBC가 압도적으로 높은 건 잘하셨다. 네이버 입점이 잘 됐으면 좋겠다.
 - 지금은 가히 정치의 계절이라고 불릴만하다. 특히 6월 지방선거는 중앙 정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조만간 전남광주 통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 확실한 정치의 도시 광주에서는 그 열기가 더 뜨겁다고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월15일 방영된 <시사용광로>의 <지방선거 앞둔 정

치권, 내홍 정국> 프로그램은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흥미롭게 시청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광주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청와대 오찬 불발 이야기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문제, 민주당 내 내홍 문제들을 잘 다뤘다. 특히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른바 새로 출범할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시청자가 큰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시청자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의 결말은 출연자들도 말했듯이 전남과 광주가 새로이 통합될 광역자치단체장에 청와대 인사가 올 것인지 말 것인지가 핵심이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이 또한 의미 없는 논의나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저어하지만, 현재 출마 후보자들의 지지도 비교나 이들과의 경쟁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나아가 어느 선택이 당장의 지역 발전은 물론, 정치 거목이 없는 향후 호남 정치계를 위해 바람직할 것인지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을 가져봤다. 앞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한 심층적인 대담 프로그램을 몇 번의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도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연대, 지역 선거 이후 합당 문제 등을 좀 더 깊이 다루되, 양 당 관계자들을 출연시켜 그들의 진솔한 속내를 들어본다면 좋을 것이다.

- 설제학 위원 : -2월19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윤석열 내란죄 첫 판결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 두 가지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 친지들과의 자리에서 화두였던 윤석열 첫 판결을 불과 몇 시간 전 마음을 풀이며 생중계로 본 긴장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청했다. 아쉬움은 있지만 최소한의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최기영 변호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판사의 양형 사유 언급을 보며 엄청난 분노를 느꼈던 한 사람으로서, 패널분들의 적절한 지적에 감사함을 느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권력자에 대한 특혜 없는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주제 선정도 매우 반가웠다. 개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다수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데 있어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5·18이 헌법 속의 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이자 정신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라고 하신 한선 교수님의 마무리 멘트도 매우 좋았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해주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정오의 희망곡 박혜림입니다>에서 방송된 ‘AI 슈퍼 스타’ 코너는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을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효율성의 도구로 소비하지 않고, 청취자의 사연에 맞춘 ‘음악 제작’이라는 감성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점이 매우 신선했다. 특히 이번 주 ‘남편의 승진 축하곡’ 사례는 자칫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깊은 진심을 전달하는 따뜻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단순한 축하 인사를 넘어 사연에 최적화된 선율과 가사를 입히는 과정은 큰 흥미와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는 AI가 가족 간의 사랑과 격려를 더욱 풍성하게 표현해주는 정서적 조력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다.
 - <놀라운 3시>에서는 동계 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과 그 이면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조리팀의 노고를 조명한 기획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경기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먹거리’와 ‘정성’이라는 디테일을 다룸으로써 라디오라는 매체 특유의 따뜻한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선수들을 위해 준비된 명절 음식 소식은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로 들렸다. 세밀한 현장 소식을 통해 선수들의 고충과 명절의 정을 동시에 전한 구성이었다.
- 유한별 위원 : -<시사용광로> ‘호남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가는 조건은?’을 시청했다. 우리 호남의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호남이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에너지 자립과 용수 확보, 전문 인력 양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호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고 글로벌기업들의 RE100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때 반도체 기업 유치의 최우선 순위는 전문 인력 확보일 것이다. 전남대, GIST,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수도권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기 위한 정부 정책과 각 지자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노력에 광주MBC가 함께 해

주길 기대한다.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값 숙소 등 여러 가지 할인 정책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이 할인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나주가 올해 방문객 숙박비를 절반까지 환급해 주겠다고 홍보하였으니 사업 내용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플래카드까지 폐기해야 해서 아까운 혈세 낭비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여전히 선심성 정책 등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는 실질적인 관광객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실망감만 줄 뿐이어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도 각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광주MBC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잘 된 정책은 홍보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 이경주 위원 : -지난 2월5일 방영된 광주MBC <시사용광로> ‘호남,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가는 조건은?’ 편은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매우 심도 있게 고찰했다. 이번 방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미디어가 지향해야 할 ‘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방송은 무엇보다 단순한 산업 유치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 법률·사회, 학계 등 각계 전문가를 통해 입체적인 논의를 끌어낸 점이 돋보였다. 조인철 국회의원, 하승수 변호사, 맹종선 교수 등 전문 패널들은 중앙 정부와의 협업 및 입법 지원의 시급성을 명확히 짚어주었으며, 실질적인 R&D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시청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통찰을 제공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AI와 반도체를 양대 축으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꾀하는 시점에서, 방송이 정책 결정자와 시청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및 ‘국가 1호 상생팝 유치’와 같은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으로써, 추상적 논의를 넘어 실천적 가치를 한 단계 높인 기획이었다. 향후 방송 제작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먼저 연속 보도를 통한 로드맵 점검을 당부드리고 싶다. 반도체 거점 조성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국가 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에서 도출된 정치·법률·기술의 세 가지 축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반기별 후속 보도를 편성하여 지역민과 지속해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융합 시너지를 다루는 콘텐츠 기획을 제안한다. 광주는 이미 AI 중심 도시로서 견고한 기반을 닦고 있다. 차후에는 ‘AI-반도체 융합’ 기술이 지역의 정보문화 산업과 결합하여 어떠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산업 간 시너지를 다루는 심층적인 콘텐츠가 제작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한 방송에서 논의된 핵심 인프라 구축과 기술 자립도 향상을 위해 기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 이미진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천원의 행복을 소개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천원 한 끼부터, 천원 반찬, 천원 병원 동행 서비스, 천원 택시, 천원 파크골프 등 천원으로 누릴 수 있는 더 가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광산구가 확대 시행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큰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미담도 발굴하고, 좋은 정책도 소개해주길 바란다.
- 장은백 위원 : -2월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전체적으로 리뷰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리포트와 단신의 비중이 1:1에 달하고 있다. 하루 6건 내지 8건의 보도 내용 중 리포트는 3, 4건에 해당하는데 그중 2건은 지역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주MBC에서 자체 작성하는 리포트는 하루 평균 1건 내지 2건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단신 내용은 대부분 내용이 매우 짧고, 기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내용을 풍부하게 보완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지식, 인터뷰, 제언 등은 전무하다. 사건 단신의 경우 너무 내용이 적고, 농수산물 가격에 대한 때우기식 단신이 너무 잦다.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단신도 다수 보인다. 내용을 풍부하게 채우거나, 깊이 있는 고민이 들어있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기자와, 단신을 담당한 기자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그라운드 지식, 인터뷰, 통계, 제언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리포트와 단순 사건정보 전달 목적의 단신의 비율은 방송국 인력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단신이 많을수록 시청자로서는 수준 있는 보도를 접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2월15일부터 2월21일 1주일간 광주MBC <뉴스데스크>에서 나간 기사를 분석해보면 2월21일 토요일 8건 중 4건 단신, 2월20일 금요일 6건 중 3건 단신, 2월18일 수요일 8건 중

4건 단신, 2월17일 6건 중 3건 단신, 2월16일 4건 중 단신 2건, 2월15일 5건 중 단신 3건으로 단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에서 받는 리포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리포트만 광주MBC에서 작성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광주MBC 보도 역량이 최대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단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이 몇 명으로 한정되고 있는 패턴이 보이는데, 리포트 작성과 단신 기사 작성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도 인력이 공평하게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지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광주MBC는 원래 리포트 역량이 뛰어났고 기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역량이 뛰어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으나, 리포트 비중을 높이고 단신 비중을 최대한 줄여주신다면 지역민으로서 더 보도 가치 있고, 고퀄의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되겠다고 생각한다.

- 정희 위원 : -<광주MBC보다> 전남광주 통합 관련 민형배 의원 편을 시청했다. 서울을 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비전은 단순히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경쟁력 있는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보였다.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지역의사제 강화 등의 문제 제기는 향후 차차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시사용광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아야 할 것은?'에서는 양부남 의원, 신정훈 의원 등이 출연했다. 권한 이양의 범위와 정도, 지속 가능한 재정확보 조항, 교육자치 반영 필요성 등의 아젠다와 통합 이후 지역 대표성의 불균형에 대한 이슈 제기를 들었다. 통합 이전의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도 중요하고 통합 이후에도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적 자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시청자 제시 의견으로 <테마기행 길> 출연 연예인이 식당 주인과 이야기할 때 말끝에 반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말투 때문에 식당 주인이 아랫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시청에 불편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유의하도록 해야겠다. 다양한 나이대의 시청자가 시청하는 만큼 방송에서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으로 2026년 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